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잘 들어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승인

-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질 권리를 부여하노라.“
- ”폭군과 그의 무리를 상대로한 정의로운 전쟁에서
위대한 정신으로 승리를 거둔 신성으로 가득한 황제
플라비우스 콘스탄티누스에게 바치다.“
-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완성되자
다른 도시들은 모두 별거벗은 상태가 되었다.“

■ 히파티아의 순교

- ”나는 진리와 결혼하였다.“
- ”내가 생각하는 권리를 비축하여라.
왜냐하면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낮기 때문이다.“
-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 따위를 진리처럼 가르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유익한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더욱 비극적인 것은 결국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며
탁월한 지성을 갖춘 여성이다.“

▣ 샤를마뉴 대제의 중세 유럽 부흥

- ”돌과 나무와 하늘의 새들이 나의 무기가 될지어다.“
- ”자유인과 농노의 아이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들도 함께 문법, 음악, 산술을 배우도록 하라.“
- ”내가 로마제국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하노라.“

▣ 칭기스칸의 대제국

-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 ”그림자말고는 친구도 없고
말꼬리말고는 채찍도 없다.“
- ”신의 부름이 드높아지면서,
내가 짊어진 책임감도 무겁다.
내 치하에 무엇인가가 부족할까 두렵다.“
- ”능수능란하고 용감한 자들은
군지휘관으로 길렀다.
민첩하고 유연한 자들은
말을 다루도록 했다.
능숙하지 않은 자들은
작은 채찍을 주어 양치기가 되게 하였다.“
-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항복하지 않고 투쟁과 저항으로 맞서는
이들은 전멸시킬 것이다.“
- ”하늘의 도움으로 너를 위해 거대한 제국을 세웠노라.
그러나 세계정복을 달성하기에는 내 생이 너무 짧았다.
이 일은 이제 네게 맡기노라.“

•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적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절대로 곡을 하거나 애도하지 마라.

탕구트의 군주와 백성들이 기간에 맞추어 밖으로 나오면

그들을 모두 없애 버려라!“

• ”금나라의 성들이 단단하니

남송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해서

남쪽에서 공략하라.“

•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 단테와 베아트리체

•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 ”추위에 떨어진 사람만이 태양의 소중함을 알 듯이,

역경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인생의 귀중함을 안다.“

• ”지옥의 문은 모든 희망을 버린 자들을 향해 열려 있다.“

• ”단테 알리기에리의 생애는

마치 거칠고 요동하는 시와 같다.

<천국>은 언감생심이고

<연옥>보다도 <지옥>에 더 가깝다.“

• ”한걸음 한걸음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걸음 한걸음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큰 성과는 가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아주 훌륭한 일의 시작일 수도 있다.“

■ 성녀 잔다르크

- ”행동하라, 그러면 신은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다.“
- ”내일은 일어나라, 오늘 일어난 것보다 더 일찍,
내일은 행하라, 오늘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최선을 다하라!“
- ”어서 가서 프랑스 왕을 구하라.
오를레앙의 포위망을 풀도록 하라.“
- ”강한 신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 ”만일 내가 신의 은총을 입지 않았다면,
신은 나를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신의 은총을 입었다면
신은 나를 지킬 것이다.“
- ”아 나를 잔인하게 대하다니,
화형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곱 번 참수당하는 편이 나으리라.
나의 몸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타버려 재로 돌아가누나.“

■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

-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 ”내가 신천지를 발견한 것은
나의 수학의 힘이나 항해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 ”모방하는 것은 쉽지만 처음 생각해내는 것은 어렵다.“
- ”물론 누구나 이 달걀을 세울 수 있소.
하지만 누구나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건 아니오.
내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이런 이치라오.“

• ”잠이 꿈을 꾸듯 바다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

• ”최초의 근대 천문학자이면서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자였다.“ -----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쿤의 평가

• ”모든 발견이나 이론 가운데 어떤 것도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보다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대단한 특권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괴테

▣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전방위 르네상스 예술

• ”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지 못하는가!
먹히는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다.“

• ”모나리자는 눈길을 끌 만큼 눈부신 미모는 아니다.
눈썹은 없고 뺨은 너무 통통하고,
머리카락은 너무 가는데 반해 이마는 매우 넓다.
샛별처럼 빛나는 눈도 아니고,
뇌쇄적인 성적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녀가 그토록 강한 마력을 풍기는
수수께끼 여인으로 보이는 것은
차가운 적의가 담긴 신비한 미소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그녀를 본 사람은
도저히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다.“

■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 ”우리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목표를 높게 잡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공하는 것이다.“
- ”나는 대리석에서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자유롭게 풀려날 때까지 조각을 하였다.“
- ”하느님은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고도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았다. 그런데 조각상 하나 만들어 놓고 자랑이나 하듯이 내 이름을 새겨 넣은 나 자신이 부끄럽구나.“
- ”영혼은 신에게, 육신은 대지로 보내고, 그리운 피렌체로 죽어서나마 돌아가고 싶다.“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 ”군주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요새는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민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 요새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 ”바다가 고요할 때 폭풍우를 대비하라.“
- ”거짓말쟁이가 되십시오. 혼란을 일으키십시오. 두려움에 떨게 하십시오. 권력은 오랫동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이란 다정히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소한 피해에는 보복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는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군주는 능숙한 거짓말쟁이어야 합니다. 자유에 익숙한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선 내분을 조장하거나 주

민을 분산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유의 기억을 망각할 것입니다.“

■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 ”면죄부으로써 죄를 면할 수는 없다.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 ”노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망쳐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빈둥거리며 놀고 지내다

결국 신체와 생명이 망쳐지고 만 경우는 허다하다.

새가 날도록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느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국 제패

•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 버려라.“ - 오다 노부나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두견새를 울게 만들어 보이겠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

”울 때까지 기다리자.“ ----- 도쿠가와 이에야스

-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다.

자신이 찾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주어진 일만 하는 것들은 잡병들일 뿐이다.“

- ”풀 앞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사치스러운 것을 먹어 보았지만,
가난하던 시절 배고플 때 먹은 보리밥만큼 맛있는 것은 없었다.“

-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치게 된다.“

-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마라.“

-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국 절대주의 전성기

-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 ”때로는 인내와 시간이 힘과 분노보다 더 효과적이다.“

- ”내가 사자는 아닐지라도 사자 새끼임에는 분명하다.“

- ”내가 연약한 여자의 몸을 가졌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심장과 위장은 왕으로서

그리고 영국 왕으로서의 심장과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셰익스피어의 문학세계

• ”속으로는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말며,
서로 사귄데는 친해도 분수를 넘지 말라.
그러나 일단 마음에 든 친구는
최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말라.“

•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인도는 포기할 수 있으나
셰익스피어는 포기할 수 없다.“

• ”명예라는 건 허무한 군더더기다. 공로가 없어도 때로는
수중에 들어오지만 죄를 안 저도 없어질 때가 있다.“----- <오텔로> 중에서

• ”이 밤, 그대여 잘 가요, 부디 잘 가요.
이별은 이토록 달콤한 슬픔이거늘.“ -----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 ”판단은 네스터와 같고, 천재는 소크라테스와 같고,
예술은 버질과 같은 사람. 대지는 그를 덮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올림푸스는 그를 소유한다.“

■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 ”그래도 지구는 돈다.“

• ”의심은 발명의 아버지이다.“

• ”나는 어둠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별을 좋아한다.“

• ”모든 진리는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이해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발견이다.“

• ”어찌하여 그대는 타인의 보고만 믿고
자기 눈으로 관찰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가.“

-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그들이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찾도록 돕는 것이다.“

- ”성경에는 천국에 가는 방법은 나오지만,
천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다.“